조계종, 총무원장 직속 기관 신설로 역량 강화

미래특위 7월 3일 6차 회의
불교 홍보 · 연구 기능 강화
7월 17일 전문가와 공청회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이 중앙종무기관 조직 슬림화에 나선 가운데 '종단미래대비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 이하 미래특위)'가 7월 3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 개진에 나섰다. 총무원장 직속 홍보실 신설, 국가유산청 출범에 발맞춘 문화유산 정책 수행에 중점을 둔 종무기관 개편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조계종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 주요 특징을 중점 보고했다. 총무원장 스님의 직속 기구로 조계종 연구소와 홍보실이 신설되며 종무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등 11부실 18개국으로 개편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총무원장 직속 홍보실은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발행 등이 주요 업무다. 기존 홍보국이 종단 사업의 홍보에 관한 공보 역할을 해왔다면 직속 홍보실은 조계종 대내외 홍보 기능을 도맡는다. 시대에 맞는 홍보콘텐츠 개발로 젊은 층을 유입시키고 유튜브 등 뉴미디어 홍보 강화를 통해 불교 문화의 우수성과 지역 불교 알릴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연구소는 미래본부 불교사회연구소, 교육원 불학연구소, 포교원 포교연구실 등을 통합한 것으로 미래불교를 준비하는 종단 씽크탱크다. △교재개발 중심에서 국가 및 사회 현안에 대한 불교적 해법 및 대응 △미래전략 개발, 종단 중장기 계획 등 전문적 계획 수립 △종책별, 분야별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종단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존 문화부와 포교원에서 진행하던 불교문화콘텐츠와 각종 포교매체 개발을 수행할 콘텐츠 조직이 전법포교부에 신설된다. 미래불교를 대비한 조직으로, 전법 포교에 필요한 계층별 맞춤 프로그램은 물론 콘텐츠 개발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각종 불교 콘텐츠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특히 국가유산청 출범에 조응하는 문화유산 정책 기능 강화와 함께 각종 위원회 정비로 대사회활동을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문화부는 문화진흥부로 명칭을 바꾸고 문화정책국과 문화유산국을 둬 국가유산청 정책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부에는 사회국과 시민사회국을 둬 사회노동위원회와 환경위원회 등 전문성 있는 위원회의 활동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집중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무원 중심 1원체제를 통한 총무원장 관장 영역 확정으로 업무 하중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우봉 스님은 "삼원통합은 오히려 시대 변화에 따른 포교와 교육 정책에 대한 개혁에 충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하중은 전결체계 구축과 부서장 권한 위임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면서 "교육과 포교, 홍보 등에 대한 총무원장 스님의 의지가 큰 만큼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특위는 7월 17일에는 공청회를 개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과 미래특위가 공동 주최하는 공청회는 7월 17일 오후 2시 열린다. 7차 회의는 7월 22일 오후 2시 개최될 예정이다.

정원주 당선자 "미래세대 전법·포교 최선"

7월 2일, 진우 스님 예방서
"종단과 소통해 시너지 내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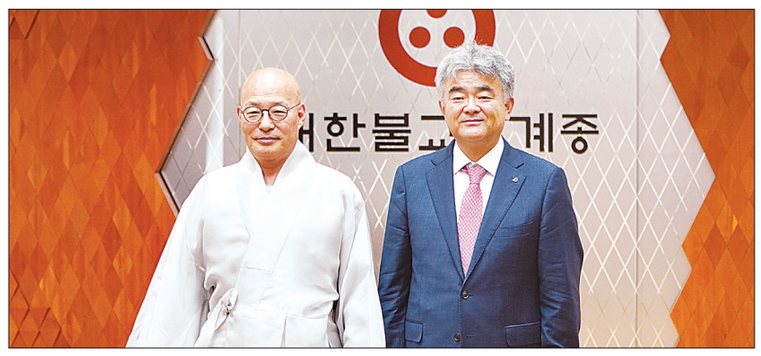
정원주 제28대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당선자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사찰을 찾아 불교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전법·포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주 당선자는 7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이같은 포부를 전했다. 정 당선자는 "옛날에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사찰에 가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다시금 사찰을 어린이·청소년·젊은이까지 모든 계층이 찾아가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사찰 내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신행생활이나 문화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 당선자는 올해 10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4년간 중앙신도회장직을 수행한다.

이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8이라는 숫자는 불교적 의미가 크다. 3계 28천(28하늘)을 상징하며 중생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을 말한다. 아침에 범종을 28번 타종하고, 가람배치도 28천을 기준으로 한다"며 "중앙신도회가 명실공히 우리 불교, 우리 종단의 최대 신도조직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이어 "종단이 추진하는 선명상을 세상에 잘 알리도록 각자 자리에서 함께 역할을 모색하자"며 "선명상을 불자 나아가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사회적 큰 흐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종단과 잘 소통해 포교·전법의 긍적적인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 당선자는 "사회가 개인화되고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스님께서 일러주신 '5초 우선 멈춤' 선명상 방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 역시 5초간 우선 멈춤으로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선명상이 대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내영 기자


정원주 제28대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당선자(사진 오른쪽)가 진우 스님에게 전법포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파리올림픽 선전 기원…불심으로 메달까지"

조계종 체육인전법단, 7월 3일
진천 선수촌 법당서 기원법회
이혜경 등 불자선수 10명 동참


'2024 파리올림픽' 앞두고 조계종 체육인 전법단이 법회를 열어 불자선수들을 응원했다.

"이 자리에 모인 동료 선수와 모든 이들이 그동안 땀 흘려 노력하고 훈련한 실력을 파리올림픽에 출전해 최선을 다하고,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수호해 주시옵소서."

7월 말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 앞두고, 국가대표 불자선수들이 그간의 노력만큼 최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처님 전에 발원했다. 조계종 체육인전법단(단장 호산 스님)이 불자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법당에서 마련한 법석에서다.

선전기원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원장 선업 스님, 포교연구실장 문종 스님과 유도(이혜경), 배드민턴(채유정), 역도(김수현), 체조, 사격 등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각 분야 불자선수 10명이 참석했다. 문홍식 체육인불자연합회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선배 불자 체육인 30여 명도 법석에 함께해 후배 선수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전했다.

이날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물고기가 변해 용이 된다는 '어변성룡'의 법문으로 불자선수들을 격려했다. 선업 스님은 "국가선수촌에 들어와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는 여러분은 이미 용이 됐다는 의미다. 너무 멋지고 자랑스럽다. 올림픽에서 여의주까지 획득해 최고의 용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며 "경기에서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스님들과 전국에서 모인 체육인 불자들이 일심으로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엄지와 검지로 하트(♡) 모양을 만드는 '손가락 하트'를 해 보인 선업 스님은 "손가락 하트는 물고기 모양과도 같다. 운동하다 마음이 지칠 땐 손으로 물고기를 만들어 스스로가 엄청난 인물임을 다시금 확인하라"며 "큰 의지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문을 마친 선업 스님은 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합장주를 끼워주며 선전을 기원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인사말 영상에서 "파리 날씨가 너무 더워 걱정이다. 그래도 선수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며 "힘들 땐 부처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훈련 기량 100%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도에 출전하는 이혜경 선수가 불자 선수단을 대표해 발원문을 낭독했고, 선수들은 합장한 채 굳은 의지를 다졌다.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하오니, 이 자리에 모인 불자 선수들에게 내면의 자유와 마음의 소중함을 알고 평화와 행복, 걸림 없는 자유와 무한한 자비심으로 파리올림픽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법회 회향 후 이혜경 선수는 "매번 올림픽 때마다 스님들께서 법회를 열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든든하다"며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수현 역도 선수도 "선업 스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기운이 난다. 이런 법회가 많아지면 우리 선수들이 더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 같다"며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듯 오늘 얻은 좋은 기운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천=김내영 기자

불국사 주지 후보에 종천 스님

7월 2일, 산중총회서 선출
83명 가운데 67표 득표로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주지 후보에 현 주지직무대행 종천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불국사는 7월 2일 경내 무설전에서 산중총회를 갖고 종천스님을 주지 후보로 선출했다. 이날 산중총회는 구성원 123명 가운데 83명이 참여했으며 종천 스님은 67표를 득표했다. 경쟁을 치른 지정 스님 9표, 정오 스님 3표, 각천 스님이 2표를 각각 얻었다.

종천 스님은 주지 후보 선출 직후 당선 인사를 통해 "어른 스님들의 덕화와 불철주야 정진하는 선방스님들의 수행, 지역 포교에 헌신하고 있는 말사스님, 묵묵히 소임을 맡고 있는 소임자스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천 스님은 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0년 사미계를, 1993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석두암과 연주지암, 오어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불국사 주지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불국사가 선거를 통해 주지 후보를 선출한 것은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으로 선거법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임은호 기자

대한민국 최대 관음응신상

-관음보살님의 신통한 위력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려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소서-

40여년간 불교미술조각에 외길을 걸어온 '금어 불교미술조성소' 김승엽 소장은 권정학 선생의 문하생으로 생의 마지막 결과물이자 대한민국 최대의 33관음상을 조성하여 국제적인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수상경력
1987 정통불교미술대전 '장려상' (동국대 주최)
1989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특선' (조계종 주최)
1991 대한민국불교미술재전 '가작' (조계종 주최)
2008 신라미술대전(조소부문) '입선' (한국미술협회 주최)
2009 제5회 국제종합예술재전 '대상' (한서미술협회 주최)

일체중생을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호하심과 가피를 입고 살아가며 중생은 그 은혜를 알아 보은행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번 33관음응신상 조성의 후원을 통해 가내에 큰 은혜와 기적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2-1709-1692-11 성수진 사무국장
연 락 처 | 금어 불교미술조성소 소장 김승엽 010-6262-5840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